

주낙영, APEC 유치 코앞... 지역 현안 챙긴다

새해 첫 읍·면 동장 회의
시민행복적극 실천 당부
소외계층 돌봄행정 지시

주낙영 경주시장이 APEC 유치를 코앞에 두고 산재한 지역 현안사업을 그물망처럼 챙긴다. 주 시장은 지난 1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새해 첫 읍면동장 회의를 주재했다.

그는 지난해 노고를 격려, 올해도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시민복지 행정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읍면동장은 주민들과 직접 현장에서 접촉하는 시정의 중요한 간교역할이 가장 큰 임무다.

주 시장은 지역 숙원사업 및 직소민원 등 구석구석 주민들의 목소리를 청취, 애로사항은 적극적인 해결로 신뢰하는 현장행정을 주문했다.

설 명절과 동절기 홀몸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 돌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진다.

무엇보다 어려운 세대가 있으면 지역 독지가, 경주페이 'Happy 동행' 등을 이용, 도움의 사연을 전파하는 등 사랑의 손길이 갈 수 있도록 정이 넘치는 복지행정 당부도 잊지 않았다.

2월 폭설 등 '슈퍼 예뵤' 발생에 대비, 제설 장비 점검 사전 점검 및 확보도 지시했다.

2022년에 이어 국민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 2년 연속 1등급(경주시 등 전국 6개 기관) 획득에 적극 노력에 감사 인사도 아끼지 않았다.

시민들이 판단하는 외부청렴도에 비해 조직 내부 청렴도가 낮게 나타난 것은 인사, 업무, 내부결속 결여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는 게 이유다.



때문에 주 시장은 사명감과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소통과 대화를 주문, 청렴행정을 재강조했다. 산불예방 원천차단 하는데 행정력을 모으라고 주문했다. 산불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다. 주 시장은 "이-통장, 직원, 산불감시원, 경찰-소방 등 비상연락망을 완비, 감시원 격려, 독가촌 계도,

산불예방 홍보물 보안 등 순찰활동이 산불예방과 직결된다. 적극적인 예찰과 예방홍보에 만전을 주문했다.

그는 "시민들에게 시장홍보와 다양한 생활소식 등을 전하는 '알짜배기 경주소식'이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가입자가 1만5000여 명으로 이-통장, 자생단체 회의, 반상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더

많은 주민들이 가입, 유익한 정보를 놓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 독려를 지시했다.

주 시장은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귀성객들이 깨끗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환경정비 주문 등 쾌적한 도시 가꾸기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는 등 시민이 행복한 시장구현에 열의를 당부했다. 윤용찬 기자



대구 달성군 유튜브 출연
달성군이 공식 유튜브 채널인 전국달성자랑의 '맛나는 달성' 코너에 '먹방 유튜버' '애정'이 출연한다. 유튜버 구독자 315만 명을 보유한 '애정'은 '먹방 ASMR(편안하게 느끼는 백색 소음)'을 제작하는 유튜버로서 달성지역 관광지와 숨은 맛집을 소개하는 코너에 등장한다.

군위군 토지거래허가구역 70% 해제

군위 전체면적 423.9km² 해제
소보면 56.9km² 효령면 86.9km²
부계면 54.4km² 우보면 31.4km²
의흥면 48.4km² 산성면 31.3km²
삼국유사면 전체 해제 됐다

군위군 전체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약 70%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대구시 군위군 편입으로 투기적 거래 및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제된 구역은 지난 11일 발표된 '군위군 도시공간개발 종합계획'에 따라 개발예정지에 포함되지 않거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 및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곳이다.

대구시는 2023년 7월 1일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따라 예상되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 및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예방하고 기획부동산 사기 등을 사전 차단, 향후 군위군 개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군위군 전체에 대해 지난해 7월 3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은 '군위군 도시공간개발 종합계획'을 통해 개발계획이 수립됐다. 확정된 개발 예정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과 지

속적인 부동산 모니터링을 통해 지가 불안정 및 투기 가능성이 낮은 지역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즉시 해제해 개발계획의 성공적 추진과 군위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도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신속하고 유연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해제되는 면적은 총 423.9km²로 군위군 전체 면적의 약 70%에 이른다.

읍·면별로 살펴보면 소보면 56.9km², 효령면 86.9km², 부계면 54.4km², 우보면 31.4km², 의흥면 48.4km², 산성면 31.3km²가 해제됐고 삼국유사면은 전체를 해제했다.

군위읍의 경우는 지가변동률 등 지표가 불안정하고 투기우려 등을 고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했다.

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토지의 거래 면적이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은 20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이전 군위군청에 토지거래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도시지역 외의 지역 중 농지 500㎡, 임야 1,000㎡, 농지·임야 이외의 토지 250㎡를 초과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용도별 2~5년간(농업·축산업·임업·어업 및 주거용 2년, 개발용 4년, 기타 5년) 이



용 의무가 발생된다. 실수요자의 경우는 허가구역 내 토지의 취득이 어렵지 않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표 이후의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해서는 자금 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불법 증여 등 이상거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허가 회피 목적의 계약일 허위 작성 등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한다.

부동산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성행이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등 조치를 강화한다.

향후 군위군 공간개발계획의 추진에 따라 개발계획의 확정되거나 지가 안정 등으로 해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단계적으로 지정 해제하는 등 탄력적인 토지거래허가제도를 운용한다. 박재성 기자

대구공무원노조 "강제동원 안돼"

전국공무원노조 대구지역본부가 성났다.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선거가 가장 비민주적인 노동착취의 현상이 되고 있다는 게 이유다. 때문에 대구 공무원노조는 선거사무 강제 동원 중단을 촉구했다.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지난 21대 총선 당시 32만 6000명의 투·개표 사무원 중 민간 인력은 40%, 강제 할당된 공무원이 60%였다.

올해 정부 예산 편성안을 보면 정당이 추천하는 투표참관인은 6시간에 10만 원을 지급받지만 공무원과 일반인 투표사무원은 14시간에 13만 원을 받는다.

공무원노조 측은 "새벽에 출근하고 밤샘 근무에 대한 대가가 시급 9290원으로 올해 최저시급인 9860원에도 못미친다.

민간인력 유입이 어렵다면 선거사무수당을 현실화해야 하는데, 정부가 제대로 된 수당 지급 대신 공무원을 강제로 동원하려 한다"며 "최저임금과 연동된 선거사무수당을 지급하고 선거사무인력의 민간 참여 비율을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공무원의 희생을 기반으로 한 선거운영을 언제까지 계속할 셈이냐"며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이 계속된다면 선거사무종사자 위촉 거부 운동 등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조여은 기자

"소통과 화합하는 의정, 신뢰받는 열린 의회"

칠곡군의의회

귀담아 들겠습니다. 발로 뛰겠습니다!

의	의	의	의	의	의	의	부	의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장	장
박	오	권	이	구	이	오	김	배
남	용	선	창	정	상	종	태	성
희	만	호	훈	회	승	열	희	도

토국 평화의 도시 칠곡



홍준표 “핵전력 강화해야 北 핵공갈에 해방”

홍준표 대구시장은 19일 한·미 원자력 협정을 수정해 핵물질 재처리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트럼프 리스크가 다가 오는데 마냥 손놓고 있다가는 정

말 북의 핵노예가 되는 날이 머지 않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세계 군사력 5위, 북은 36위라고 하는데, 우리가 왜 북의 위협에 가슴 졸여야 하나. 그건 핵미사일 때문”이라

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핵전력을 강화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즉시 전력화할 수 있도록 핵 재처리부터 가져와 북의 핵공갈로부터 해방된다”며 “한·미 원자력 협정부터 고쳐 일본처럼 핵물질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군위군 명예읍면장 고향사랑기부...곳간 넘쳐

김진열 군위군수, 명예읍면장 고향 군위를 생각해주는 마음 되새겨 '기대'와 '희망' 넘치는 군위군 만들겠다 새작오 다져

군위군은 지난 16~19일까지 실시한 읍·면·순회군민공감대회에서 각 읍면에 위촉된 명예읍면장이 고향발전 염원을 담아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명예읍면장들이 고향 군위를 생각해주는 마음을 되새기며 기대와 희망이 넘치는 군위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2년 12월 위촉된 명예읍면장은 지역사회에 공헌이 크고 군위 발전에 기여도와 참여도가 높은 출향 인사 등으로 각 읍면에서 추천받아 위촉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이윤희 군위를 명예읍면장 500만원 △김영대 소보면 명예면장 300만원 △김오현 효령면 명예면장 500만원 △홍해근 부계면 명예면장 100만원 △박대현 의흥면 명예면장 300만원 △김제환 삼국유사면 명예면장 100만원을 기탁했다.

이윤희 군위를 명예읍장은 태금정(주)(경남 김해) 대표이사로서 기부 선행에 앞장서고 있는데 1억 기부 적십자 아너스클럽에도 이름이 올려져 있다.

김영대 소보면 명예면장은 니피폴리머(주)(경북 칠곡) 대표이사로서 군위군에서 2021년 자랑스러운 군민상을 받은 데 이어 2022년에는 칠곡에서 자랑스러운 군민상을 수상했다.

김오현 효령면 명예면장은 ㈜고성세라미(경



남 고성) 회장으로 2011년에는 조경용 소나무를 군위군에 기증해 일연공원에 식재하였으며 고성군 아너소사이어터에 가입돼 있다. 홍해근 부계면 명예면장은 영남가구사(경산

대표 대구수성구의회 4대 의장을 역임, '희망 2024년 이웃돕기' 성금 기탁에 이어 고향사랑기부도 동참했다. 박대현 의흥면 명예면장은 화인씨엔씨(서

울) 대표이사로서 전)재경군위군향우회 회장을 역임, 지역행사 후원 및 교육발전기금을 기탁, 태풍 '카눈' 수해복구에도 힘을 보탰다. 김제환 삼국유사면 명예면장은 청우산업계

발(대구 동구) 대표로 재대구 삼국유사면 향우회 회장을 역임, 지역사회 활동과 봉사로 모범적인 출향인으로 지역에 귀감이 되고 있다. 박재성 기자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지 최적지 대구뿐이다

추진단 갑진년 첫 회의 개최 산·학·연·병 전문가 모여 논의

대구시가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에 행정력을 총동원 한다.

전국 최고 수준을 넘어 글로벌 치과산업의 중심도시로 거듭 나야 한다는 게 이유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의 법적 근거가 되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이 지난해 연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구시도 연구원 유치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지난 19일 산격정사에서 국립치의학

연구원의 대구 유치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 유치 추진단'(추진단) 첫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정장수 경제부시장, 박세호 대구시치과의사회장, 권대근 경북대치과병원장, 박광범 메가젠 임플란트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대구치과의사회의 그간 유치 활동 보고와 대구 유치의 타당성을 짚는 정책연구 중간 결과 발표, 향후 추진 전략 논의 등을 진행했다.

시는 대구치과의사회 등과 함께 교통 요충지로 탁월한 접근성, 풍부한 치과 관련 인프라 구

축, 우수 연구기반 보유, 공동연구가 가능한 우수 연구센터 보유를 대구 유치의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앞서 지난해 8월 홍준표 대구시장은 간부회의를 통해 연구원 유치 관련 TF(태스크포스) 팀 구성을 주문하며 행정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은 우리나라 치의학 산업의 도약과 성장을 주도하는 핵심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반드시 치의학 산업 발전을 위해 역량 있고 우수한 인프라를 갖춘 최적지에 설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경북도, 북부지역 맑은물 정책 실현 잔결음

북부지역의 각종 수질 검사 연구사업 경북 물 재이용...

경북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역이 맑은물 정책에 공들이고 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신도시 조성 및 확장에 따른 인근 소하천의 수질 변화와 오염원 관리 장기 모니터링으로 도청 신도시 인근 하천과 호수 16개 지점에 대한 신도시 수질측정망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250건의 수질측정망 모니터링 조사결과를 유관기관 및 해당 시군과 공유, 신도시 친수공간 오염원 관리 및

장기대책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연구원은 북부권역 물부족 해결을 위한 사업으로 도내 5개 공공하수처리장의 처리수를 대상으로 '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 활성화 방안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 결과 방류수는 하천유지용수·조경용수·농업용수 등의 분야로 재이용, 대체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제시했다.

정장수 경북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역장은 “북부 지역의 각종 수질 검사와 연구사업으로 경북의 수(水) 재이용을 활성화하고, 북부권역 깨끗한 수환경 이미지를 더욱 향상시켜 맑은 물 정책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준길 기자

달성군 마을방송국 개관...첫 방송

박대규 대표 “함께 만드는 방송 주민이 행복한 달성 만들어요” 유튜브 ‘달방라방’서 시청 가능



달성군마을방송국(이하 방송국)이 지난 18일 개관식을 갖고 첫 방송을 시작했다. 개관식에는 최재훈 달성군수와 자치단체장,

기관장, 지역 주민들이 참석, 달성군 첫 마을방송국 개관을 축하했다.

방송국은 대구시가 행복한 마을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진행되는 '마을공동체활성화'에 따른 협동조합으로 운영된다.

달성군 유가읍 하나리옴킨즈파크 아파트 내에 마련된 방송국은 2021년 10월 대구영상미디어센터 지원사업으로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대구마을주간 행복 달성 in 마을공동체'에서 자체 촬영과 행사 진행을 맡으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활약했다.

현재 음악·노동·환경·교육·육아·일상 등의 주제로 지역 주민이 직접 콘텐츠를 기획, 제작해 주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다.

또한 각 기관·단체의 추진 업무와 소식을 주민들에게 알 빠르게 알려주고 있다.

방송은 팟빵과 유튜브에서 '달방라방'으로 검색하면 시청할 수 있다.

박대규 협동조합 달성군마을방송국 대표는 “주민의 소리를 모아, 지역문제를 해결해 가는 마을 미디어 플랫폼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대구시, 총선 앞두고 공직기강 특별 감찰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90일 전인 1월 11일부터 선거일 전인 4월 9일까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등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특별감찰에 나섰다. 이번 감찰은 2023년 말부터 운영 중인 연말연시 및 설명절 공직감찰과 병행하고, 행정안전부의 감찰활동과 연계해 시 및 구·군 감찰반원을 투입해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행동강령 및 복무규정 위반 등 공직기강 문란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한다.

공무원의 선거 관련 SNS 활동 및 정당 행사 참석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뿐만 아니라 민원처리 지연 및 방치, 업무처리 회피 등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소극행정 등을 중점적으로 감찰할 계획이다. 감찰 기간 중 적발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와 고의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김수중 대구시 감사위원장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공무원의 선거 중립 위반행위 등 일탈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민주 경북도당, 4·10 총선 승리 다짐

임미애 도당위원장 “진짜·가짜 가리는 도민승리 총선될 것”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임미애)은 경북도당 회의실에서 '2024 신년인사회'를 갖고 오는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

거에서 반드시 승리해 경북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기로 다짐했다.

경북도당 상무위원, 소속 시·도의원과 이번 총선에 출마할 예비후보들을 비롯한 도당 핵심당직자들이 대거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각 후보들은 지역 현안과 필승 전략을 함께 나누었다.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북은 거의 모든 경제사회지표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는 데도 13명이나 되는 국회의원 국회의원들은 지역 발전은 안중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총선은 수도권 일극주의에 대응하고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소중한 기회이자 '진짜'와 '가짜'를 가리는 도민 승리의 날”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지난해 10월 '경북도민 5만 인터뷰'를 시작으로 '총선준비 선거아카데미'를 비롯해 지역위원회별로 유권자들의 니즈를 분석하고 선거에 반영하기 위한 진단심층면접을 진행하는 등 총선을 준비해 왔다. 김성용 기자



대구교육청 “학생 기초학력 보장”

대구시교육청이 초·중·고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나선다. 시교육청은 학습지원 대상 학생 선정,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 강화, 기초학력 보장 지원

체제 내실화 등을 위해 3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우선 초등 2학년~고교 2학년을 대상으로 3월 초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오는 6월과 9월, 12월에 맞춤형 지도와 향상도 진단을 한다.

기초교과 문해력·수리력 책임교육, 1수업2교사제 수업협력교사인원 확대, 난독학생 지원대 상 확대 등을 통해 기초학력 보장 지원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황태용 기자

임종식 경북교육감 “경북교육 미래 밝다”

경북미래교육지구 구미·영주·영양·영덕 등 모두 12곳 운영

경북교육청이 지난 19일 교육청 오피스에서 구미시, 영주시, 영양군, 영덕군과 경북미래교육지구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경북미래교육지구는 “따뜻한 경북교육”을 실현하고자 경북교육청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협약으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이 사업은 2020년부터 경주, 안동, 상주, 의성, 예천 등 5곳에서 운영을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문경, 청송, 칠곡 등 3곳, 올해는 이날 협약한 4개 지구가 추가로 지정돼 경북에서는 모두 12개의 경북미래교육지구가 운영된다.

도 교육청은 학생인구와 경제활동 가능 인구가 급감하는 미래 사회를 대비해 교육청·지자

체·학교·지역사회가 협력체계를 구축, 지역의 교육력을 높인다.

중점 과제는 △소통과 협력의 경북교육 거버넌스 구축 △지역 연계 교육과정 운영 △지역 연계 돌봄과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는 마을 학교 운영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공교육 혁신을 위한 지역 특색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무엇보다 △학교 밖 돌봄 △방과 후 프로그램 △지역 특화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지역주민들의 사교육비 부담과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을 완화해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지역 학생들과 주민을 위한 배움터를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 구성원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경북미래교육지구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 사업을 지속 운영해 지방소멸 위기와 학생인구 급감 상황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준길 기자



구미대 13년간 평균 취업률 80.4%...전국 1위

졸업생 1000명 이상 전문대 기준 유지 취업률(84.2%)도 전국 1위 전문대 취업률 평균 75.8% 상회



구미대학교가 지난 13년간 평균 취업률 80.4%를 기록했다. 대학 정보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가 발표한 전국

전문대 취업률에서 구미대는 78.6%(졸업생 2002명)로 졸업생 1000명 이상 전국 전문대 중 비수도권 1위를 차지했다.

올해 공시된 전국 전문대 평균 취업률은 73.2%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조사된 2022년 2월 졸업생 취업률이다.

교육부가 건강보험DB를 기준으로 취업률을 발표한 2010년부터 최근까지 구미대는 13년간 평균 취업률 80.4%를 보였다. 특수목적 대학 등 졸업생 1000명 이하 규모를 제외한 전문대 중 전국 취업률 1위를 차지했다.

졸업생 10명 중 8명 이상이 꾸준히 취업에 성공하고 있는 셈이다.

취업 만족도 평가 주요 지표인 1년간 유지취업률에서도 구미대는 84.2%를 보이며 졸업생 1000명 이상 기준 전국 전문대(기능대 제외)에

서 1위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은 75.8%다.

구미대가 전국 최상위 취업률과 유지취업률을 이어가는 이유는 3000여 기업이 소재한 구미국가산업단지 기업과 협약을 맺은 전국 우수 기업들이 구미대 인재를 선발하는 등 풍부한 취업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체계화된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시스템도 한 몫을 했다.

입학 후 학생 개인별 희망 진로에 따라 지도교수가 맞춤형 단계별 과제와 진로를 설계한다.

학생과 교수 1대 1 평생책임지도교수제에 따라 진로 설계 단계에서 취업 후 사후관리까지 학생 지원을 위한 역량을 집중한 것도 취업률 상승에 도움을 줬다.

풍성한 장학금 제도도 취업 경쟁력에 힘을 보태고 있다.

2022년 구미대는 1인당 연평균 장학금에서 전국 전문대 1위(재학생 2500명 이상)를 차지했다.

1인당 연평균 장학금은 530만원으로 실질적인 등록금 부담은 학생 1인당 한 학기 평균 25만원 미만에 그쳤다.

장학금이 등록금의 91%를 상회했다.

장학금 수혜 폭도 넓어 재학생 98% 이상이 장학금 혜택을 받았다.

이승환 구미대 총장은 “학생들이 학비 걱정 없이 전문 직업인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진 기자

‘일·생활 균형지수’...대구 5위 도약

대구시, 시민이 행복한 삶 영위 다양한 정책 발굴 추진에 앞장

대구시가 고용노동부(고용부)에서 발표한 전국 17개 시도의 일·생활 균형 정도를 보여주는 ‘2022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에서 5위로 도약했다.

과거 중하위권(10위)에서 상승한 결과다. 일(근로시간), 생활(여가시간), 제도(제도활용), 지자체 관심도 등 네가지 영역 24개 지표로 나눠 평가하는 일·생활 균형 평가에서 전 분야에 걸쳐 수준이 향상됐음을 말해주고 있다.

생활 영역 점수가 타 지자체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해 워라벨(Work & Life Balance)에 대한 시민 인식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달성군, 생활체육광장 개장 생활체육 인프라 확장 총력

달성군은 19일 달성테크노스포츠펠드에서 국회의원 및 초청인사 등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달성테크노스포츠펠드 및 생활체육광장 개장식’을 가졌다.

개장한 달성테크노스포츠펠드(유가읍 상리 971 일대)는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공모사업에 선정, 국비 30억 원을 확보했다.

군비 185억 원을 들여 총사업비 215억 원, 연면적 5,078㎡, 지하1층/지상3층 규모의 수영장, 실내 어린이놀이터 및 건강·문화강의실 등의 생애주기형 체육놀이 공간으로 조성했다.

달성테크노폴리스 생활체육광장은 총사업비 48억 원을 투입, 달성스포츠펠드와 화석박물관을 제외한 잔여 터에 중앙광장, 바둑분수, 야외 무대, 통합놀이터, 다목적운동장, 산책로 등을 설치했다. 체육활동뿐만 아니라 지역축제나 행사 등을 유치, 복합단지로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조여은 기자

네 가지 영역 중 지역의 워라벨 상황을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영역은 육아휴직 이용,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국공립 보육시설, 초·중·고등학교, 일 가정 양립 인지도 등을 지표로 하는 ‘제도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대구시는 2019년 11.6점, 2020년 14.7점, 2021년 16.6점, 2022년 18.3점으로 상승하고 있다.

시는 전국 최초로 2015년 대구일생활균형지원센터를 설립해 지역 내 일과 생활의 균형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오고 있다.

가족친화기업 문화 확산을 위해 현재까지 208개 기업이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았으며, 일·생활 균형을 위한 근로자 교육과 문

화활동을 지원하는 등 시민이 공감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켜 워라벨 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도 가족친화인증기업 지정 확대, 워라벨 공감 토크콘서트 개최, 워라벨 청년기자단 운영, 일생활 균형 기업 실천 포럼, 모범사례 공모와 일생활 균형기업 문화활동 지원사업 등 생활 속 실천 캠페인을 통해 일생활 균형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송기찬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대구시는 그동안 워라벨이 가능한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일과 생활의 균형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태영건설발 건설경기 악화 대구 직격탄

대구 아파트 건설현장 일부공정 중단 발동등 임금 미지급 큰 원인...

대구 동구 옛 동부정류장 후적지 아파트 건설에 참여한 지역 협력업체가 태영건설발 건설경기 악화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21일 대구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태영건설이 신천동 옛 동부정류장 후적지에 설립 중인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공급 역할을 하는 A협력사가 형틀 공사 등 일부 공정을 중단했다.

지난 15일 지급됐어야 할 임금이 들어오지 않아 임금을 받지 못한 50여명의 노동자가 작업을 중단했다. 나머지 인부들도 임금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현장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공사 현장에는 200여명의 인부가 일하고 있으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11억원에 달한다. 레미콘, 철근 등 자재비 4억원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태영은 워크아웃을 신청한 지난달부터 협력사에 인건비와 자재비 모두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로 지급하기로 했다.

외담대는 태영이 신용도로 발급한 채권을 담보로 협력사가 대출받아 매달 인건비 등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는 ‘어음’ 결제 방식과 유사하다.

하지만 태영의 경영 위기로 은행에서 외담대 대출을 막았고 이것이 A사가 근로자에게 임

금을 주지 못한 이유다. 후방인인 이 아파트는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 높이, 450세대(아파트 418세대, 오피스텔 32세대)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며 공정률은 약 53%다.

실 명절을 앞두고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해 생계에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

근로자 A씨는 “지난해 11월 일부 금액을 받지 못했는데 12월 임금도 밀렸다. 아음을 현금화하려면 다음달 27일이 지나야 한다고 들었다”며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이라 일부 노동자는 카드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면허증만 있으면 건설 전문업체를 세워 하청 받을 수 있는 건설 현장 구조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건호 건설노조 대경건설지부 조직부장은 “중이(면허증) 한 장만 있으면 건설 회사를 만들어 하도급을 받다 보니 금전적인 보완책이 전혀 없는 영세 업체가 많다”며 “이런 건설업의 고질적 병폐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노동 당국과 지자체는 점검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구노동청은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지역 10개 건설 현장을 조사하고 기성금 집행 여부 등을 점검해 협력업체 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집중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상공회의소와 경영자총협회 등과 함께 현장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문제 해결책을 찾는다. 조미경 기자

경북도, ‘경북형 외국인책임제’ 추진

외국인 입국부터 정착까지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

경북도가 올해 외국인의 지역 정착을 지원·확대하는 ‘경북형 외국인책임제’를 추진한다.

지역 맞춤형 외국인 비자 제도로 지난해 영주시, 영천시, 의성군, 고령군, 성주군 등 도내 5개 시군 29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지역특화형비자 제도를 올해는 대폭 확대해 15개 시군 1000명을 법무부에 지난 8일 신청했다.

15개 시군은 지난해 시행 5곳과 봉화군, 영양군, 청송군, 영덕군, 울진군, 청도군, 울릉군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등 10곳이다.

오는 26일 법무부가 선정 시군을 발표하면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이 제도가 시행된다. 도는 광역비자(R-비자) 발급을 위해 관련 시행령과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 플랫폼 구축에도 나

선다. 이공계 석·박사 과정 외국인 우수 인재를 유치해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북형 초청장학제도(K-GKS)’를 시행할 대학으로 도는 지난 12일 포항공대, 금오공대, 안동대, 대구대 등 4곳을 선정했다. 이들 대학이 양성한 외국인 인재를 반도체, 2차전지 등 연구인력이 부족한 지역 우수기업에 취업하게 된다.

사업 첫해인 올해는 4개 대학에서 각 10명씩 총 40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지원한다. 이들 외국인 우수인재의 취업·주거·비자 해결을 위해 경북도는 지난 17일 구미에 K-드림 외국인지원센터를 개소했다.

도는 또 외국인 정착지원과 사회통합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정착초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생활정보, 경북특 등을 교육하는 경북글로벌학당을 운영하고 한국의 개발 경험을 공유하는 초청장학제도도 지방정부 최초로 추진한다. 김성용 기자



경북농협 '온기 나눔' 이어가기 계몽운동 동참

경북농협은 경북도 온기나눔 범국민 캠페인에 참여했다. 경북도는 지역 특성에 맞춘 사랑의 온기나눔 릴레이를 기획해 설 연휴 전까지

도내 22개 시·군에서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과 나눔행사를 추진한다. 경북농협은 농가주부모임 예천군연합회와 함께 지난해 수해로 큰 피해를

입었던 예천군에 50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기부하고 연탄 나눔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임도곤 경북농협 본부장은 "사랑의 온기나눔 릴레이 행사에 작은 정성을 보탬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 코스피 (+32.70)	▲ 코스닥 (+2.34)
2,472.74	842.67
▼ 엔화 (-2.91)	▲ 유가 (+0.03p)
902.77	1,562.43
▼ 환율 (-3.50)	▲ 금(금) (+7.70)
1,337.50	2,029.30

www.dgy.co.kr

대구시설공단, 대구지역 기업 발전 이바지...

자율주행 방역로봇 기술개발 'HD현대로보틱스'와 손잡아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지난 달성군 유가읍에 위치한 HD현대로보틱스 본사에서 개방형 혁신 업무협약을 맺었다.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가진 자원과 신기술을 공유, 협업 네트워크로 연구개발과 플랫폼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공단은 지하상가 등 다양한 공공시설과 도시 인프라를 관리·운영하고 있다. 로봇 산업의 엔지니어인 HD현대로보틱스는 최근 본사를 대구로 이전했다. 엔지니어는 특정산업이나 지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대면 방역 로봇 시범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으로 공단과 HD현대로보틱스는 △지하상가 시설을 활용한 자율주행 방역 시스템 개발 및 검증 테스트베드 제공 △기술-제품 상용화를 위한 양 기관 피드백 제공 △실증완료 후 혁신제품 조달청 구매 신청 지원 등을 공동 추진한다. 업무협약을 추진한 공단 사업지원처 담당자는 "혁신기술개발실증으로 자율주행 방역로봇 기술, 플라즈마 공기정화 기술, UVC LED 살균 기술 등의 개발과 상용화, 지역상생 등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문기봉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기업이 개발한 기술과 제품을 실증하기에 좋은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공단의 인력, 장비, 기술을 지역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해 적극 개방, 대구지역 기업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청약통장 쓸모가 없네" 대구는 6만명 떠났다

작년 12월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수 115만 8187명 전년 동기 121만 7644명 무려 5만 9457명 줄었다 해지율 4.8% 대전시 등 5대광역시 중 가장 높아

청약통장이 외면받고 있다. 한때 무주택성인들의 필수품처럼 여겨지던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매달 줄어들고 있는 탓이다. 민간·공공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가입하는 청약통장은 가입 기간과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청약가점을 줘, 무주택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골고루 준다는 취지로 1977년 도입됐다. 청약통장을 만들어 시세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분양받고, 나중에 평수를 넓혀가는 것이 지난 50년 가까이 대한민국 서민들의 자산증식 공식이었다. 하지만 분양 가격이 시세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내 집 마련의 디딤돌 역할을 하던 청약통장을 버

리고 떠나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대구에서 6만명이 청약통장을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대구지역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115만 8187명으로 전년 동기(121만 7644명)에 비해 5만 9457명 줄었다. 해지율이 4.8%로 대전과 함께 수도권 및 5대광역시 중 가장 높았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통장 해지율은 2.9% 수준이다. 대구의 해지율이 전국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것은 미분양 물량 적체에 따른 '분양제로' 현상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대구의 신규 아파트 분양은 1998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단 1기도 없었다. '묻지마 투자' 열풍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12만 6000가구가 공급될 당시에는 청약통장이 내 집 마련의 필수품이었지만 분양시장 위축으로 통장 유지 필요성이 사라진 것이다. 연 4%대인 정기예금 금리보다 낮은 2.8% 수준의 청약통장이 저수익 청약통장 해지에 한몫했다.

한수원, 수력·양수 분야 사외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19일 '2024 제1차 수력·양수 분야 사외전문가 자문회의'를 가졌다. 수력·양수 분야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문회의에는 윤상조 한수원 그린사업본부

장을 비롯해 법·제도, 이·치수, 수질·환경, 댐관리, R&D 등 각 분야별 사외전문가로 위촉된 대학교수, 연구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발전용댐 관련 법령체계 개선을 위한 발전용댐 관련 법제도 검토 및 문제점 분석에 대해 논의했다. 윤용찬 기자

경북 신품종 포도 재배 기술 보급 세계무대 진출...

다양한 글로컬 포도 품종 개발 수출시장개척 국제적 입지다져

경북농업기술원이 신품종 포도 재배 기술 보급으로 수출 경쟁력을 높인다. 도농업기술원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기술원 육성 포도 신품종 '골드스위트'와 '루비스위트'의 고품질 재배 기술과 농가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내용을 담은 안내책자를 2023년에 이어 개정증보판을 발간했다. 조영숙 경북농업기술원장은 "이번 안내책자 발간으로 국내 포도 품종의 다양성과 경쟁력을 강화, 수출시장을 개척해 국제적인 입지를 확고히 다진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히 국내 시장에만 국한되지 않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글로컬(Glocal=국제

global)와 지역(local)의 합성어로 지역특성을 살린 세계화를 뜻함)포도 품종 개발과 보급을 위한 큰 그림의 청사진이다"라고 강조했다. 포도 신품종 '골드스위트'는 2020년에 육성된 녹황색 품종으로 노지재배 시 9월 상·중순에 수확, 아삭한 식감과 맛있는 꿀 향이 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루비스위트'는 8월 하순에 수확하는 조생종 적색 포도로 과피색과 수확시기가 사인머스켓 품종과는 차별화된 특징을 지닌다. 이 두 품종은 사인머스켓 단일 품종의 재배면적 급증으로 인한 생산량 증가와 특정 시기 홍수 출하로 가격 급락에 대응, 품종 다양화로 농가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육성 보급됐다. 재배 매뉴얼은 △무핵 과실 생산 △수분관리 △생리장해 경감 기술 △주요 병해충 관리 등 신 품종 포도 재배에 있어 필수 기술들을 상세히

다뤘다. 농부들은 품종 고유의 특성을 살리고 맞춤형 재배 기술로 안정적인 수확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국내 재배환경에 맞는 고품질 재배 기술들이 정립, 신품종 재배 농가들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책자는 경북도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배포된다. 신품종 포도 재배에 관심 있는 농가들도 현장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용한 지침서로 활용된다. 경북농업기술원은 앞으로도 포도 신품종 농가들이 국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한다. 수출 규격품 생산 컨설팅, ㈜한국포도수출연합, 포도수출지원단 등과 협업한 전문 수출단지 조성 등을 적극 지원한다. 김성용 기자

DGB금융지주 글로벌 승계 회장 1차 후보군 압축

CEO 외부전문가 1대1 멘토링 프로그램...확정

DG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우수한 역량과 자질을 갖춘 최고경영자를 선임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그룹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프로그램을 확정하고 차기 회장 톱리스트 후보군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회추위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차기 최고경영자를 선임하기 위해 외부전문기관과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후보자 추천 모든 과정을 단계별로 체계화해 프로그램을 구성했으며 객관적이고 세밀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검증 방식을 다양화하고 고도화했다. 프로그램에는 사외이사 7명 외에 외부전문기관 2개사와 다양한 분야의 외부전문가 14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단계별 진행 방식과 평가방법

등을 후보자에게 사전 공개해 후보자간 경쟁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 회추위는 1단계 프로그램인 톱리스트 선정 프로그램에 따라 내·외부 후보자를 대상으로 자격요건 검증, 서류심사, 다면평가(평가조회)를 실시했으며, 금일 톱리스트 후보군을 선정했다. 향후 회추위는 톱리스트 후보군 대상으로 사외이사 심층 인터뷰, 행동면접(B.E.I) 평가, 업무분야별 전문가 평가, 심층 인적성 검사, 외부전문가 심층 인터뷰/면접 등 체계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거쳐 2월 중 2차 후보군(숏리스트)을 선정할 예정이다. 조미경 기자



경산시의회
Gyeongsan City Council

시민이 행복한 경산시!!

경산시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갑진년 경주사랑기부금, 고액기부자 2호 탄생

이경숙 대구 아임사인 마음연구소 대표가 지난해 이어 올해도 경주사랑기부제 연간 최고 한도액인 500만원을 기탁했다. 올해 고액기부자는 한주식 자산그룹 회장에

이어이 대표가 두 번째다. 이경숙 대표는 지난해 1월에도 경주사랑기부제 고액 기부자 3호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이 대표는 "경주시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고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에 공감, 기부를 하게 됐다. 고향사랑기부금으로 경주 발전에 보탬이 되면 뜻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기부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 원까지로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 사회 공헌 행보 따뜻한 세상 만든다

경주시, 퇴직 신중년 300명 행복한 사회공헌 기회 제공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 40곳 매칭 사회 재참여 길 확 열어

시는 운영기관과 함께 신중년과 기관·단체를 매칭시켜 사회공헌기회를 제공한다. 참여자들에게 시간당 2000원의 수당과 하루 교통비 6000원이 주어진다. 이 사업은 2016년부터 매년 평균 300여명의 신중년들에게 사회 재참여 기회를 제공해 퇴직 후 보람 있는 노후를 보내고자 하는 이들에게 큰 호평을 얻고 있다. 사회적기업·비영리단체 등 참여기관도 전문 인력 확보와 단체 운영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 올해는 사회서비스, 문화·예술, 교육연구, 상담 멘토링 등 13개 분야에서 참여자를 모집한다. 신청요건은 경주시 거주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의 퇴직자 중 희망 신청 분야 경력 3년 이상 또는 국가민간자격증 소지자다. 모집공고는 이달 안으로 게시한다. 자세한 내용은 운영기관인 (사)가경사회서비스지원센터(054-773-5002)로 문의하면 된다. 경주시는 지난해 문화·예술분야 199명, 사회서비스 분야 71명, 교육연구 분야 44명, 상담 멘토링 분야 9명, 행정지원 및 기타분야 13명의 총 336명의 사회공헌형 일자리를 창출했다.



지역의 어느 한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신중년들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생활용품 제작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주시가 퇴직한 신중년에 다양한 분야에 사회공헌 기회를 제공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신중년의 전문성과 경력을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 등에 제공해 사회서비스를 확산하는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퇴직자들에게 지역 사회에 봉사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올 한해 공익적 사회서비스를 확산시키고자 4억 원의 예산을 들여 참여자 300명, 참여기관 40곳 규모로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은 만 50~70세 미만의 관련 자격과 경력을 보유한 신중년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단체 등에서 봉사활동을 통해 재능 나눔을 하는 사업이다.

행복향촌 도시재생뉴딜사업 '성공가도' 달려

경주시, 2024년 행복향촌 도시재생뉴딜사업설명회 일상이 여행이 되는 마을

상권·마을활력소, 마을부엌·카페, 게스트하우스, 문화마당 등의 거점시설 조성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목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 시작돼 올 연말까지 진행된다. 설명회에서는 올해 행복향촌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계획과 사업 종료 후 주민들의 자생력 확보 방안,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수익화 전략 등을 알렸다. 주민공동체 비즈니스를 통한 지속가능한 마을의 발전 방향도 제시했다. 이용희 행복향촌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대표는 "2021년부터 시작해 3년간 진행된 도시재생 사업으로 마을의 많은 발전을 이뤘고 주민들이 설립한 마을공동체인 협동조합과 마을기업을 통해 공동체 비즈니스 방향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는 사업이 마무리되는 만큼 주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해 도시재생 사업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동수 철도도심재생과장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주민들이 운영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안정적으로 정착, 마을의 정주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는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황촌마을활력소에서 열린 행복향촌 도시재생 뉴딜 사업설명회 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주시는 지난 17일 황촌마을활력소에서 황오동 주민 및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 '2024 행복향촌 도시재생뉴딜사업' 설명회를 가졌다. 행복향촌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철도와 문화재로 가로막혀 쇠퇴해 오던 경주문화관1918 동편 옛 철도관사마을의 활력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윤용찬 기자 / 사진은 경주시제공

경로당 행복선생님 교육 성공 마무리

경주시, 경로당 행복선생님 45명 대상 회계 교육 실시

경주시가 대한노인회 경주시지회에서 주관한 경로당 행복선생님 45명 대상 회계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교육은 경로당 어르신들이 평소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보조금 관련 회계업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복선생님들의 역할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새해 달라지는 경로당 냉난방비를 비롯해 운영비 지원내용과 경로당 보조금 사용 시 지출방법, 주의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경로당 행복선생님은 주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어르신들을 방문 프로그램(건강증진, 여가·취미) 코디네이터 △복지(위기노인 조기발굴) 코디네이터 △경로당(안전점검, 회계지원 및 정보제공) 코디네이터의 3중 역할을 수행한다. 올해 경로당 냉난방비는 지난해 대비 25만원 증액된 연간 최대 233만원이 지급되며, 운영비는 면적별로 연간 250~280만원 까지 차등 지원된다.

시는 이번 교육으로 보조금 집행과 정산에 대한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로당 보조금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경로당 운영을 기반으로 모든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활동과 친목을 도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더불어 지속적인 노인복지 프로그램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어린이 성장 지원 금융교육 인기 짱

경주시 드림스타트 아동 대상 금융교육

경주시의 어린이가 성장을 지원하는 금융교육이 인기다. 드림스타트 아동 15명을 대상으로 올바른 경제 관념을 갖춘 어린이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교육을 했다. 배경혜 아동청소년과장은 "지역 아동들이 이번 금융교육으로 똑똑한 용돈 관리 방법을 실

천하고 성인이 된 후에도 합리적인 소비와 저축 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은 지난 18일 경주시 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렸다. 이날 금융교육 '똑똑한 용돈이야기, 미래금융'이라는 주제로 KSD나눔재단이 운영하는 찾아가는 금융교육 후원프로그램에 따라 진행됐다. 교육은 초등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경제교육을 통해 현명한 소비습관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다.

용돈 관리와 현명한 소비를 주제로 화폐의 역할, 현명한 용돈 관리 방법, 용돈기입장의 필요성과 작성에 대해 전문 강사의 강의로 진행됐다. 시는 이번 교육으로 어린이들이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경제의 구성요소에 대해 배우는 계기가 될 것을 평가하고 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아동은 "보드게임에서 용돈으로 저축도 하고 물건도 사고 해보니 돈은 잘 쓰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며 "오늘 배운 방법으로 스스로 용돈관리를 잘 해보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노력한다.

경상북도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희망합니다 Golden City Gyeongju

포항 울진 청도 칠곡



포항 대이동 청년회·특우회 설 맞이 성금 300만원 기탁

포항시 남구 대이동 청년회·특우회는 지난 17일 UA컨벤션에서 대이동 청년회장 이취임식 행사를 개최하면서 설 맞이 이웃돕기 성금 300만원을 기탁했다.

이취임식 행사에 받은 축하 쌀 화환을 대이동행정복지센터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증한다.

대이동 청년회는 평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어르신들을 위한 '이화 효잔치'를 비롯 각종 맞춤형 봉사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박영희 대이동장은 "매년 명절마다 대이동 어려운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청년회 특우회 회원들께 감사드리며 성금은 도움이 필요할 사각지대분들에게 잘 쓰겠다"라고 말했다.



칠곡소방서 정기총회 개최

칠곡소방서는 지난 17일 소방공무원 및 소방안전협의회 임원 등 20명이 참석, 소방안전협의회 정기총회를 가졌다.

정기총회의 주요 내용은 △신인원 5인 위촉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보급에 관한 사항 △현제 추진 중인 소방정책 공유 및 홍보 △산업단지 화재예방 및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방안 협의 △소방시책 관련 건의사항 및 의견 수렴 등이다.

민병관 칠곡소방서장은 "칠곡군의 소방발전과 안전문화 확산에 큰 힘을 보태는 소방안전협의회 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지역사회 소방안전을 위한 공동 노력으로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확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울진, 해양수산사업 신청 접수

울진군은 2월 16일까지 어업인들의 소득향상을 위해 24개 사업, 총 43억원 규모의 해양수산사업 신청을 받는다.

주요 사업은 생분해성 어구 보급 등 어선어업분야 7개 사업, 수산물 유통 가공분야 2개 사업, 양식장 시설 현대화 등 수산자원 조성분야 15개 사업 등이다.

사업별로 신청요건을 갖추어 군 해양수산과, 남울진민원센터, 울진축산물·울진후포 수협에 신청하면 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어획량 감소와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 이슈로 인한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어업인들에게 어업경영 부담 경감을 위하여 국도비 확보 등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기한내 빠짐없이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하수 청도군수가 지난 18일 신속집행 추진계획 회의 후 청도에 벤치마킹 하러온 김철우 보성군수 일행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김하수, 민생 복지 문화 관광 세마리 토기 잡는다

민생안정 신속집행 추진 총력 소외없는 복지고을 추진 논의 김철우 보성군수와 직원 30명 청도 문화행정 한수 배움시다

김하수 청도군수가 갑지년 새해를 '청도를 새롭게 군민을 만나게'라는 구호에 맞게 행정력을 모은다.

김군수는 민생안정에 다른 신속집행 추진에 심혈을 기울인다.

청도만큼은 소외없는 복지 고을 만드는데 힘쓴다.

■ 민생안정 신속집행

김하수 청도군수는 지난 18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신속집행 추진계획 회의를 가졌다.

회의는 청도군수 주재로 부군수, 국장, 부서장, 주무팀장 및 주요사업 팀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 안정을 위한 재정집행 제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 군 재정 70% 집행을 자체목표율로 설정했다.

집행 독려를 위한 수시 대책회의 및 추진계획 보고, 주요 사업 추진상황 상시 모니터링, 이월사업 중점 관리, 부진사업 점검 회의 등을 통해 목표액 초과집행에 총력을 기울인다.

김군수는 "급리급사, 불가상승 등에 따른 지역 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책임감 있는 재정집행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선제적인 예산 투입으로 청도를 새롭게 군민을 만나게 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고 덧붙였다.

■ 소외없는 복지 추진 논의

같은 날 김군수는 '2024 제1차 생활보장위원회'를 열었다.

회의는 군청 제1회의실에서 열렸는데 관계 공무원 및 생활보장위원 15명이 참석했다.

위원회에서는 △2023 청도군 자활기금 결산 △2024 청도군 자활지원 계획 △2024 복지급여 대상자 연간 조사계획 △부양의무자 가족관계 해체 인정 여부 심사 △긴급 및 복지 지원 적정성 심사

등 7건의 안건을 면밀히 검토, 원안대로 심의·가결했다.

2024년 복지수급자 1만4797가구 1만8513명의 소득·재산 변동에 따른 연간 조사계획을 확정했다.

복지급여 지급의 적정성을 기하고, 부양가족이 있으나 가출·이혼 등으로 장기간 가족관계가 해체돼 보호를 받지 못하는 등 어렵게 생활하는 12가구를 구제했다.

사고나 중한 질병으로 소득을 상실한 위기상황에 처한 7가구에 긴급복지지원 적정성을 사후 심사해 지원을 결정했다.

김군수는 "충충한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으로 군민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군민들이 생기려는 행복한 청도군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 및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보성군 한수 배우러 왔어요

김철우 보성군수와 직원 30여 명이 김하수 청도군수를 찾았다.

호남지역에서는 처음이다.

현안사업 연계 및 주요사업 발굴을 위한 벤치마킹이다.

전남 보성군은 예로부터 나라가 어지러울 때 나라를 위해 충절을 바친 충의 열사를 많이 배출한 고장 의화(義鄕)이다.

보성의 자랑인 서편제, 보성소리의 창제자 정음민의 예술혼과 채동선의 민족음악이 살아 숨쉬는 고장 의향(藝鄕)으로 불린다.

우리나라 최대 차 주산지로 차문화의 본고장 다향(茶鄕)인 3향(鄕)의 고장으로 알려져 있다.

보성군 직원은 한재 미나리단지, 청도읍성, 와인터널을 방문, 청도의 우수한 관광지와 농업자원을 벤치마킹하고, 보성군의 발전 방안을 적극 찾겠다고 밝혔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우수한 지자체가 많은데도 청도군 방문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머무는 동안 불편함 없이 청도군을 잘 둘러보고 군의 좋은 이미지를 안고 가오면 한다"고 환대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새해 보성군의 첫 발걸음이 청도군을 향해 뚫기고, 영호남 지자체들 간의 관광·문화·농업의 상생교류로 아름다운 동행은 안고 잘 마무리 다 간다"고 답했다. 조여은 기자

포항시, 올해 걷기 좋은 녹색 보행도시 건설

활기 넘치는 걷기 문화 활성화 행정력 총 동원

포항시가 시민들의 도시 속 모든 일상을 '걷기'로 연결하는 녹색 '보행도시' 조성에 속도를 낸다.

시는 2016년부터 추진한 그린웨이 프로젝트로 총 67만㎡(축구장 95개 면적)에 이르는 녹색공간을 확충했다.

2017년부터 시민과 함께하는 '2000만 그루 나무 심기 운동'도 추진해 현재까지 1851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도시에 생명력을 더했다.

올해부터 그 동안 확충된 도심 숲과 가로 숲을 연결해 걷기 좋은 도심 만들기를 넘어 산과 강, 해안까지 연결하는 도시 전역을 걷기 좋은 건강한 도시로 만든다.

시는 △탄소프리 보행도시-도심 그린로(路) △대한민국 최고-포항맨발로(路) △산과 바다를 품은-섬, 에코로(路)를 핵심 슬로건으로 정했다.

시는 먼저 선형의 철길숲을 중심으로 도심 곳곳

을 연결하는 녹색 보행로를 조성하고, 철길숲에서 동쪽으로 뻗은 포스코대로에 보행자 중심거리인 '그린워크'를 만든다.

순차적 복원 중인 도심 하천 '학산천 복원사업'을 올해 준공해도 다룬 보행축도 구축한다.

맨발로30선과 전국맨발걷기축제로 유명해진 포항의 맨발길을 확충하고 송도와 해도에 황톳길을 개설한다.

건강한 걷기 문화 확산과 친환경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고, 맨발길을 통한 이웃 간 커뮤니케이션도 형성한다.

포항시내 등산숲길 688km를 집중 관리하는 한편 단절된 등산로를 연결하는 사업인 '스티제구간 보도교 설치'를 통해 건강한 등산문화도 확산할 계획이다. 112km 해안둘레길 전체 구간을 개통해 도시 전역의 산·강·바다를 걷기 좋은 길로 연결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올해는 포항 그린웨이를 더욱 확장해 맨발 걷기를 선도하는 도시답게 황톳길을 신설하고 활기 넘치는 걷기 문화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창명 기자



울진군, 위기 직면 양봉농가 살리자

울진군은 오는 31일까지 이상기후와 병해충 등으로 위기에 처한 양봉 농가 지원을 위해 17개 사업, 4억1000만원 규모의 보조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사업 주요 내용으로는 양봉사료, 유류토지 밀원수, 병해충방제기, 우수여왕벌보급, 꿀벌화분 등 10개 사업에 3억8000만원이 투입된다.

양봉농산물저온저장고, 자동채밀기, 벌통지원 등 기자재 지원 7개 사업에 1억2000만원을 지원한다.

군은 이번 사업으로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꿀벌 생산성 향상을 유도해 나간다.

기후변화에 따른 꿀벌 질병과 수년 동안 양봉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준 낭충봉아부패병 등 기생충 피해 예방을 위해 양봉농가에 구제약품 3종(응애, 노제마, 낭충봉아부패병)에 대한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읍·면사무소 사무소에 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 축산관리팀(054-789-6792)으로 하면 된다. 이정수 기자

칠곡군, 공직자 재산등록 교육

칠곡군이 재산등록 의무 공직자를 대상으로 재산등록 교육을 했다.

교육은 실제 공직자재산등록시스템을 이용해 재산변동신고서 작성 요령과 공직자윤리시스템 이용법을 익히고, 재산을 누락하거나 잘못 신고하는 등 자주 발생하는 실수사례를 공유, 한층 더 청렴한 공직문화 형성에 기여한다.

군의 재산등록의무자는 현재 361명이다.

매년 1회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하며, 부동산 유관부서 공직자는 재산형성 과정까지 빠짐없이 기재해야 한다.

김재천 기획감사실장은 "공직자의 재산등록은 투명한 업무수행을 꾀하는 가장 기초적인 윤리다.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군민이 원하는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미경 기자

2024 울진 금강송 춘계 중등U-15 축구대회

축구 유망주들의 꿈의열전 1월 23일부터 대장정 돌입

'2024 울진 금강송 춘계 중등U15 축구대회'가 오는 23일 막 오른다.

축구 꿈나무들의 산실이 전국 최대 규모의 중등 축구대회다.

대회는 108개 팀(고학년 71개 팀, 저학년 37개 팀) 30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울진종합운동장 등 7개 구장에서 보름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2024 울진 금강송 춘계 중등 U-15 축구대회'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명실상부 전국 최고 권위의 축구대회다.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 유망주를 발굴하는 꿈의 무대이자 전국 축구인 화합의 장이다.

그동안 갈고 닦았던 선수들의 기량과 재능을 겨루는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던 이번 대회는 고학년, 저학년 총 4개 그룹으로 나누어 경기가 진행되며 그룹별 우승자를 가린다.

군은 이번 대회를 통해 어린 선수들이 그동안 훈련으로 쌓은 실력을 마음껏 펼치고 축구에 대한 안목을 넓혀 한국 축구발전의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우수한 스포츠 인프라와 천혜의 자연경관 속에서 선수 여러분들이 재능과 기량을 마음껏 펼칠길 기대한다"며 "대회기간 동안 울진의 맛과 멋도 함께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은 향후 지속적인 스포츠대회 유치와 방문객의 유입을 위해 관계기관·단체와 지속적인 소통과 더불어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대회는 대한축구협회(KFA)가 주최하고 경북축구협회와 울진군축구협회가 공동 주관한다. 이정수 기자

영덕 울릉 청송 영양



한국나눔연맹 영덕군에 성품 기탁

(사)한국나눔연맹(이사장 안미란)은 지난 18일 영덕군을 찾아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백미 10kg 1,000포, 김치 10kg 500박스, 라면 500박스를 기탁했다.

한국나눔연맹은 1992년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홀몸 어르신과 결식아동 무료급식 사업과 생활여건 개선 사업, 지구촌 빈민 지원 사업 등 국내외 해외를 넘나들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기관이다.

2021년 영덕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영덕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현재까지 주기적으로 관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물품 기탁을 이어 오고 있다.

기탁된 물품은 설 명절을 전후 관내 취약계층 가구를 위해 지원된다.



영양군, 공공 겨울축제 28일까지 ...연장 운영

제1회 영양 공공 겨울축제가 28일까지 연장 운영한다.

당초 5~21일까지 운영 예정이었던 이번 축제는 우천으로 18~23일까지 임시 휴장하고 24~28일까지 재개장 운영된다.

기존 무료 스케이트장 운영 행사에서 눈썰매장, 회전 눈썰매장, 빙어낚시, 빙어잡이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새롭게 개최한 제1회 영양 공공 겨울축제는 행사 11일째 누적 방문객 수 1만 5천 명을 돌파하는 등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 축제를 통해 영양을 방문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휴장 기간 내 재정비를 통해 연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청송 주왕산면 청년회 이웃돕기 성금 기부

청송군 주왕산면 청년회는 지난 19일 이웃돕기 성금 300만 원을 기부했다.

주왕산면 청년회는 주왕산면에 거주하는 청장년들로 구성된 단체로 지역의 크고 작은 일에 앞장서 지역발전과 이웃사랑을 실천해 오고 있다.

지역 내 소외계층에 따뜻한 정을 나누는 등 많은 봉사로 주민들로 칭송을 자자하다.

성금은 지난 주말(1월 13~14일) 청송 아이스라이미빙 월드컵대회 기간동안 간식 판매부스를 운영하여 얻은 수익금 전액으로 마련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주왕산면 청년회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리며, 보내주시는 마음은 주변의 이웃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힘 쓰겠다"고 말했다.

김광열, 해양수산분야 보조사업 51억 투입

어려움 겪는 수산·어업인 큰 도움 공정효과적 추진

김광열 영덕군수가 수산분야에 행정력을 모은다.

김 군수는 올해 해양수산분야 보조사업에 51억 원을 쏟아붓는다.

어업인 생산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수산업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양수산분야 보조사업 신청은 새달 2일까지다.

해양수산보조사업은 수산자원 사업, 어선어업 지원, 수산물 유통·가공 지원사업 3개 항목 17개 사업이다.

수산자원 사업에는 △수산물물 예방백신 공급 △양식어가 종자재 지원 △양식장시설 현대화 △인증부표 보급 지원 △정지성 어구 인양장비 지원 △양식장 첨단 기자재 보급 등 어업 장비와 양식업 지원에 9억 1880만 원(보조금 5억 9333만 원, 자부담 3억 2547만 원)의 사업비가 책정됐다.

어선어업 지원사업은 올해 신규사업 어선폐선 지원사업에 포함 △어선장비 지원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소형어선 안전관리 지원 △유류절감형 어선 부력

판 설치 등 어선의 안정성과 성능을 높이는 장비와 수리를 지원하는 재원으로 4억 6900만 원(보조금 2억 7700만 원, 자부담 1억 92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수산물 유통·가공 지원사업은 △수산물 유통·가공 활성화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지역특화 수산물 소비 촉진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가공설비 지원 등 수산물 위생·안전과 시설 현대화, 소비 촉진을 위해 지난해 보다 20억 증액한 37억 1000만 원의 사업비(보조금 22억 4600만 원, 자부담 14억 6400만 원)를 확보했다.

신청 대상은 어업인, 어촌계, 어업법인, 수산물 제조·가공업체로, 영덕군 해양수산과(730-6561)를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영덕군 누리집(www.yd.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올해 해양수산사업지침에 따라 사업별 신청서 및 제반 서류를 검토한 후 우선 순위 등을 고려해 결정,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백영복 해양수산과장은 "최근 기후 위기와 환경 문제 등으로 수산물 소비가 위축, 이번 보조사업이 어려움을 겪는 수산·어업인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조여은 기자



울릉 고향사랑 고액 기부 행렬 줄이어

소중한 기부금 살기 좋은 울릉 찾아오고 싶은 울릉 만들어야

울릉군에 고향사랑기부제 연간 최고 기부 한도인 500만 원을 기부한 제2·3호 기부자가 탄생했다.

지난 10일 부산에 사는 김선관 씨가 500만 원을 기부, 울릉군 제2호 고액기부자가 됐다.

11일 대구에 사는 박연주 씨가 같은 금액을 기부, 제3호 고액기부자가 되면서 울릉군에 고액기부 행렬이 줄을 이었다.

군은 2024년 울릉군 고향사랑기부제의 제1·2호·3호 고액기부자 모두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 해였던 2023년에 울릉군에 500만 원을 기부한 것에 이어, 2024년에도 2년 연속으로 같은 금액을 기

부했다고 밝혔다.

제2호 고액기부자 김선관 씨는 "기부금이 안전하고 아름다운 명품섬 울릉으로 거듭나는 데에 소중히 쓰였으면 한다. 2년 연속 기부의 뜻"을 밝혔다.

제3호 고액기부자 박연주 씨는 "활력과 생기 넘치는 울릉으로 발돋움하는 것이 기부자의 보람"이라고 전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소중한 기부금으로 살기 좋은 울릉, 찾아오고 싶은 울릉을 만들겠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울릉군 고향사랑기부제에 큰 금액을 기부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희망 2024 성금 및 장학금 기부도 이어지고 있다.

(주)동도레미콘(대표 방대식)은 지난 17일 울릉군청을 방문,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희망 2024 나눔캠페인'

성금 500만원과 지역 교육 발전 및 인재 양성을 위해 (사)울릉군교육발전위원회에 장학금 2000만 원을 기탁했다.

기탁식에는 남한권 울릉군수, 이종대 전무사가 참석했다.

기탁한 성금은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장학금은 지역 학생들을 위해 사용된다.

이종대 동도레미콘 전무는 "주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성금을 사용해 주길 바라며 지역 학생들이 앞으로 지역 발전을 이끌어가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는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기탁식에서 "전달받은 성금은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 장학금은 울릉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 사업에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정윤환 기자

영양 농기계 임대료 1억6539만원 벌었다

영양군이 마련한 2024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정기회가 지난 18일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심의위원 및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심의회에서 전년도 임대사업 운영결과와 올해 추진계획을 검토했다.

구입 농기계의 수요분석을 바탕으로 농가 활용도가 높고, 관내 지역 농업현장에 적합한 신규 기종을 선정, 영농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2010년부터 시작된 농기계임대사업은 그동안 이용 농가가 꾸준히 늘었다.

지난해 임대건수 5112건, 대여일수 6567일, 편도 운반 1290회, 농정선 151회, 임대세입 1억6539만 원의 실적을 올렸다.

방문지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현재 보유한 농기계는 54종 405대(동력형 242대/부착형 163대)이다.

올해에도 임대료 50%감면을 한시적(1.1~12.31)으로 시행한다.

농번기가 시작되는 봄철 이전까지 대어 농기계의 전반적인 수리와 안전점검을 하며 사고예방 홍보책자와 야간반사스티커도 상시 배부한다.

조용완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어려운 농업현실이지만 지역농가 생산성 향상과 소득작목 확대를 위해 다양한 종류의 임대농기계를 구입해서 활용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윤동 기자

남한권 울릉군수, 인구 1만 5000명 회복...

2024주요업무계획 보고회 중점·신규 사업 계획 논의

울릉군은 지난 17~18일까지 3일간 '2024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가졌다.

보고회는 부서장 및 담당 팀장이 배석, 부서별

2023년도 성과를 분석, 문제점과 추진방향을 도출, 2024년도 중점 사업 및 신규 사업 계획을 논의했다.

중점 추진 주요 사업은 △울릉공항 건설 △울릉다목적댐 △지질조사 △관광사업 △주도·관음도 산림관광자원화 사업 △대피시설 건립 △DPG배관설치 사업 등이다.

울릉·흑산도 등 국토 외곽 면적 지원 특별법이 제정,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만큼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 관련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2023년 공직자들의 열정과 노고로 울릉군 속원이었던 울릉·흑산도 등 국토 외곽 면적 지원 특별법이 제정됐다. 종합발전계획을 통해 인구 1만 5000명 회복, 100만 관광객 시대를 맞이하는 대전환의 시기를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윤환 기자



청송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청소년 지질탐험대 수료식을 가진 후 기념촬영하는 모습

"세계지질공원 배우고 협동심 키워요"

청송유네스코세계지질공원 청소년 지질탐험대 수료식

청송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청소년 지질탐험대 제4기 수료식이 지난 17일 열렸다.

수료식은 참여 청소년들이 한 해 활동을 돌아볼 수 있도록 수료증 및 우수 탐험대원 상장 수여, 지질탐험대 사진 전시회, 활동 영상 상영회, 활동소감 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2020년 첫 시작 이후 4회째를 맞은 청송 지질공원과 청송군 청소년수련관의 협력 프로그램 청소년 지질탐험대는 지역 청소년 대상 세계지질공원 탐방 및 체험 프로그램이다.

2023년 선발된 제4기 청소년 지질탐험대원 60명은 지난 4월 개최된 발대식을 시작으로 고등학교생 멘토와 함께하는 절골 협곡 탐방,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탐방, 조별 청송 세계지질공원 영상 만들기 등 4회에 걸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세계지질공원에 대해 배우고 협동심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지역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이 지질탐험대 프로그램을 통해 지질공원의 가치를 이해하고 자연환경 보존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병문 기자

동국대 한의학과 청송 의료봉사 인기 짱

겨울철 한방진료 봉사활동 지역주민에게 큰호응받아

동국대 한의학과와 간호대학 연합동아리 한방진료봉사단 회원 60여명이 청송을 찾았다.

18~22일까지 5일간 청송군 현동면 도평초등학교에서 군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한방진료를 하기 위해서다.

한방진료 봉사활동은 의료취약 지역인 농촌지역에 대한 의료 봉사로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제고한다.

의료봉사자들이 미래 의료인으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환자들의 혈압, 당뇨, 맥박 등 기본적인 바이탈을 측정, 현재 질병 상황과 주된 증상을 묻는 예진, 처방과 진단을 내리는 본진(침, 뜸, 부항) 치료와 현장약 처방, 개인 건강 상담을 한다.

동국대 한의대생 한방진료는 2019년부터 청송군이 지원하고 청송군 농민회가 주, 관내 한의원이 없는 면소재지를 대상으로 실시해 왔다.



개인별 면담으로 질병의 치료방법을 안내하고 맞춤형 한방 통증치료와 함께 간단한 한방 의약품도 제공,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도평초등학교 내 한방진료 현장을 찾아 "동국대 한방의료진과 행사를 주관한 청송군 농민회 관계자들에게 격려와 감사의 뜻을 전한다. 앞으로도 청송군 내 한방의료 소외 지역주민들이 골고루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병문 기자

경산 영천
고령 성주



학생들에게 보내는 응원

지난 19일 한국약초작목반 전주택 회장이 100만원, 대한노인회 영천시지회 남부동분회(회장 문종복)가 100만원의 장학금을 (재)영천시장학회(이사장 최기문)에 기탁했다.

한국약초작목반은 1일 5000여 명의 방문객이 찾는다.

영천의 인기 축제로 떠오른 영천작약꽃축제를 2018년부터 개최해 작약을 알리고 있다.

한국약초작목반 전주택 회장은 생약분야에서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2월 열리는 (사)한국생약협회 총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상을 수여받는다.

전주택 회장은 "예전부터 어려운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다. 지역 학생들이 학업에 열중하고 꿈을 마음껏 펼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기탁 소감을 전했다.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 7,000원 지원

경산시는 22일부터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먹는 치료제 대상군이 경산지역 먹는 치료제 처방 의료기관 39곳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경우 검사비 본인부담금 7000원을 지원한다.

지난 1일부터 선별진료소 운영이 종료되고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됐다.

60세 이상인 고령층과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 또는 면역저하자자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처방하는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유전자검출검사(PCR)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속항원검사(RAT)는 50%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가야산이 품은
천년의 향기
관광자원으로

성주군 법전리 사지 가치
복원·활용 학술대회 개최

이병환 성주군수가 가야산이 품은 천년의 향기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청사진을 그린다.

성주군과 (재)불교문화재연구소가 손잡고 가야산 정상이 품은 천년의 흔적을 찾는 학술대회를 가졌다.

학술대회는 '성주 법전리 사지의 가치와 복원·활용'이라는 주제로 지난 18일 오후 성주군 2층 문화강좌실에서 열렸다.

이 군수는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법전리 사지의 가치를 재조명, 향후 사지와 석조유물을 효율적으로 관리·복원 및 활용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구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더 나아가 가야산 신규 탐방로와 연계, 관광자원화 방안을 모색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법전리사지는 성주군 가야산 정상부에 위치한 절터다.

2021년 성주군은 (재)불교문화재연구소에 발굴 조사를 의뢰, 2023년까지 법전리 사지 발굴 조사를 했다.

이 결과기단갑석, 기단면석을 포함한 다양한 석탑재가 출토, 법전리사지 석탑의 원형을 복원할

수 있는 실마리를 풀었다.

발견된 석조연화대좌는 큰 규모로 인해 주목받고 있다.

출토된 부조상은 특이한 도상으로 많은 연구자의 관심을 받고 있다.

학술대회는 법전리 사지 발굴 조사를 마무리하면서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발굴 성과를 되짚었다.

법전리 사지의 가치를 조망, 향후 법전리 사지 내 석조유물 복원 및 법전리 사지의 활용과 전망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발표는 △법전리사지 발굴조사 성과와 과제(이영환, (재)불교문화재연구소 팀장) △법전리사지 출토 석탑 부재에 관한 고(임기표, 단국대학교 교수) △법전리사지 석조연화대좌에 대한 고찰(이재우, (재)불교문화재연구소 연구사) △법전리사지 석조부조상의 도상 연구(김경미, 고려대학교 초빙교수) △법전리사지 석탑복원방안에 대한 구조적 고찰(유혜란, ㈜연구소 대표) △법전리사지 기념물 지정 가치와 활용(류호철, 안양대학교 교수) 순으로 진행됐다.

종합토론에서는 '법전리사지의 불교문화유산 가치 정립과 기념물 지정을 위한 방안 모색(좌장: 임영애, 동국대학교 교수)을 주제로 열린 토론의 장이 열렸다.

고령군, 노인·장애인복지 향상 앞장

우곡면, 24 노인·장애인일자리
발대식 및 사업 지침 안내 교육

고령군 우곡면은 지난 19일 우곡면분회 2층 회의실에서 노인·장애인일자리 참여자 144명을 대상으로 발대식 및 기본교육을 했다.

발대식에서는 건강 체조를 시작으로 참여자들에게 필수적인 기본교육인 복무규정, 사업 지침 안내 등을 교육했다.

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은 올해 관내 주민들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마련하고 소득 창출에도 도움을 줌으로써 노인·장애인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2024년도 우곡면 일자리 사업을 위해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어 감사드립니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다. 안전과 건강관리를 기본전제로 면내 환경 정화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6일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 고령군연합회는 '2024 한국후계농업경영인 고령군연

합회 연시총회를 열었다.

이날 후계농업경영인회관에서 임원 40여 명이 참석했다.

총회는 2023년도 사업 및 활동보고, 결산 및 감사보고, 제23대 신임 임원 선출 순으로 진행, 신임 임원으로 이덕봉 회장, 시진기, 전중건, 한형일, 배봉환 부회장, 최병열, 전진근 감사, 전병재 사무국장이 선출됐다.

제22대 배문휴 회장은 "지난 3년간 연합회 화합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모든 임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고령군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신임 이덕봉 회장은 "배문휴 회장님을 비롯한 22대 임원진께 감사드리며 23대 임원진과 함께 연합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지난 3년간 고생한 배문휴 회장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신임 이덕봉 회장의 선출을 축하, 앞으로도 농업인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임고농민회는 지난 19일 양항1리 돌목경로당을 방문해 찾아가는 칼같이 봉사했다.

임고농민회 칼같이 봉사 '인기몰이'

각종 날붙이 무료 정비
뽕튀기 나눔행사 웃음

영천시 임고농민회는 지난 19일 양항1리 돌목 경로당을 방문해 주민들의 부엌칼 등을 갈아주는 찾아가는 칼같이 봉사를 했다.

농민회원들은 경로당에 방문, 그라인더를 이용해 각 가정에서 사용 중인 무딘 부엌칼, 과도, 전동가위 등 각종 날붙이를 무료로 정비하고 뽕튀기 나눔도 진행했다.

경로당 안에 깔 가는 소리와 요란한 뽕튀기 기계 소리가 커질수록 주민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다. 임고농민회는 양항1리 경로당을 시작으로 20여 개의 마을을 순회, 주민들에게 칼같이 봉사활동을 이어간다.

정용수 농민회장은 "추운 겨울과 함께 얼어붙은 경제로 힘든 주민들에게 소소한 행복을 전하고 싶어 봉사활동을 계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주민들을 위한 봉사를 지속적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정영섭 임고농민장은 "이웃을 위한 행복 나눔을 실천해 준 정용수 농민회장과 회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최은하 기자

경산시 세무과 신뢰 최고 업무 최고

개별 주택가격 공시 업무
우수 자치단체 인정받아
공시가격 업무유공표창장



경산시 세무과가 공시가격 업무유공 표창장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세무과는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 및 결정공시 업무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업무유공(세무8급 이윤혜 수상)'으로 한국부동산원이 수여하는 표창을 받는 성과를 거뒀다.

이 표창은 탁월한 역량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 증진에 기여한 세무공무원을 선발한 것으로 경북 도내에서는 청도군과 경산시가 수상

했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통해 가격을 산정한다.

특성조사가 완료되면 산정가격에 대한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은 거친 후 의견 제출과 시·군·구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주택의 가격을 말한다.

경산시 세무과는 부동산과 세금에 대한 관심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현시점에 맞춰 공평하고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조사 등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택가격공시업무를 담당하는 한국부동산원의 감정평가사와 빈번한 논의를 통해 신뢰받는 주택가격 구현 및 공평과세에 힘쓰고 있다.

전미경 세무과장은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조세 부과 및 보험료 산출 등의 기준이 되는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말했다.

신영운 기자

Advertisement for GyeongSan. It features the logo 'Together GyeongSan' and the slogan '기업하기 좋은 경산' (GyeongSan is good for business). Below this, it says '첨단산업도시' (Advanced Industrial City). The main text reads: '일자리가 많은 활력 넘치는 경제, 미래의 꿈이 자라는 일등교육 조상의 얼이 깃든 찬란한 문화, 행복이 넘치는 건강도시 경산시가 21세기 대한민국 대표도시로 힘차게 도약합니다.' (A vibrant economy with many jobs, a brilliant culture where the dreams of the future grow, and a healthy city of GyeongSan where happiness is overflowing. GyeongSan City is leaping forward as a representative city of 21st-century South Korea.) The background shows a cityscape and a train. The GyeongSan City logo is in the bottom right corner.

구미 김천 문경 상주의성



2023 하반기 재정집행의성군, 최우수기관에

의성군은 2023년 하반기 지방 재정집행 추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재정인센티브로, 경북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3억원을 지원받는다.

평가 항목은 △전체 집행실적 △소비·투자분야 집행실적으로 의성군은 2개 항목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의성군은 2023년 하반기 재정집행 대상 9228억원 중 8099억원을 집행하여 87.8%의 집행률을 달성했다. 소비투자분야에서는 전체된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자 당초 목표 1233억원 대비 1769억원을 집행해 536억원을 초과 집행했다.

이는 경기 파급 효과가 큰 소비·투자 부문 집행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2019년부터 5년동안 매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자력을 다시 한번 입증한 이번 쾌거는 의성군 전 공직자들의 노력으로 거둔 성과"라며 "올해 상반기에도 군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재정집행을 통해 공공 부문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재성 기자



김천시립·울곡도서관 다양한 독서문화행사

김천시립도서관과 울곡도서관은 겨울철 야간과 주말에도 운영해 시민들의 독서문화 자문화대와 각 가정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

매년 에너지사용료가 꾸준한 상승에 따라 난방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시기에 도서관이 다양한 문화 활동과 소통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고 탄소 중립 실천에 선제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방학철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도서관을 찾는 가족 단위의 이용이 늘고 있어 도서관에서는 '가족과 함께하는 어린이 인형극', '새 학기를 준비하는 부모 교육 특강', '2024 김천시 독서 마라톤', '2024 트렌드 이슈 강연회', '해설이 있는 명화-클래식 강연' 등 다양한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곧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시립도서관과 작은 도서관 5개소(자두꽃, 꿈엔들, 푸름찬, 김산고을, 큰숲)는 음악이 흐르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따뜻하고 아늑한 공간으로 변모를 시도하고 있다. 조용한 도서관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고자 분위기 있고 잔잔한 음악 서비스로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경호 기자

구미시 인구정책 성과, 감소율 40% 이상 개선

인구 유입·변화 대응 투트랙 전략 올해도 구미형 특화정책 추진 방침

구미시의 지난해 인구감소율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말 현재 구미시 인구는 한 해 2604명이 감소한 40만5506명으로 이는 4471명이 감소한 2022년과 대비해 인구 감소율이 40% 이상 개선됐다. 이런 효과는 지난해 시정의 모든 역량과 정책 방향을 인구위기 극복에 집중하고 전략적인 인구정책을 펼친 결과다.

구미시 인구는 2017년 42만1799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2018년 42만1494명으로 감소세로 돌아서 2022년 말 인구는 40만8110명으로 2010년 40만명대 진입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에 시는 민선 8기 이후 인구감소 위기관리를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인구 유입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이라는 투트랙 전략으로 인구정책 방향을 정해, 적극적으로 집중적인 시책을 추진해 나간다.

인구 위기 관리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

시는 인구 감소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인구청년과를 신설하고 청년을 중심으로 다양한 인구정책을 추진했다.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22. 12월)해 청년의 권익 증진과 사회 참여를 확대했으며, 전입 학생 학업 장려금 및 전입자 기념품(구미농산물) 등 인구증가를 뒷받침하기 위한 구미시 인구증가 시책 조례(23. 1월)도 제정했다.

또한 인구정책위원회를 새롭게 정비하고 전문가와 협력해 전부서를 대상으로 10여차례 이상의 대대 보고회와 실무회의를 통해 100여 건의 인구시책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사업 발굴에서부터 실행까지의 정책 추진 과정 전반을 체계화했다.

현금복지지향 시민 중심 행정서비스 혁신

시는 출생을 향상과 인구유입을 위해 현금성 복지 정책보다는 시민 중심의 차별화된 인구문제 해결방안을 우선시 하고 있다.

캠핑장 우선예약제(60%), 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할인(30%), 구미에코랜드 및 옥성자연휴양림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을 할인 등 구미시민을 위한 다양한 우대 혜택을 도입해 지역 사랑과 자부심을 증진시켰다.

구미 주스갯기 운동에 적극 참여한 중소기업에



운전·시설자금을 확대 지원하고, 중소기업 계속 사립자 지원, 투자유치기업 고용인센티브 추가 정산제,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지역기부 수수료 우대 혜택 등 구미소재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사업도 강화했다.

전입 학생 학업 장려금(20만 원) 및 전입세대 구미농산물 지원(3만 원 상당), 공영주차장 무료이용(1년), 구미영상미디어센터 무료이용(1년), 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할인(50%) 등 구미시 전입자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지원하고 있다.

지난 한 해 전입신고와 지원시책 신청 등의 편의 제공을 위한 60여 회의 현장민원실 운영으로 600여 명의 실거주자 전입을 유도하는 등 전 공무원이 시민 유치를 위한 세일즈맨을 자처하며 발로 뛰는 현장 행정을 펼쳤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 미래도시 인프라 구축

구미시는 인구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의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 등 장기적인 인구정책 마련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반도체 특구와 방산 클러스터 등 대형 국책사업과 기업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고, 구미-군위간 고속도로 건설 등 교통인프라 개선과 365소아청소년진료센터, 365돌봄어린이집, 진학진로지원센터 등 교육 및 돌봄 체

계를 강화하고 있다.

푸드페스티벌, 라면축제 등 구미만의 차별화된 축제를 개발해 낭만 문화도시로 새롭게 태어나며 전 분야에서 구미만의 메리트들을 높이고 있다.

2024년 미리보는 구미시 인구 전망

시는 2024년 예산 2조원 시대를 맞아 본격 추진되는 민선 8기 각종 사업들을 발판 삼아 인구감소세 개선 효과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2024년 연말까지 6500세대가 신규 입주할 예정이며, 구미가 5산업단지 1단계의 본격적인 입주와 함께 공장 가동이 시작되고, 2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실거주 미전입 인구의 증가 등은 인구 감소세 회복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22년부터 발생한 데드크로스(사망·출생) 현상이 심화(2022년 25명, 2023년 89명)하고 청년과 직장인을 중심으로 수도권과 대구로의 인구 유출 증가,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따른 수출업체 난항은 인구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024년에도 구미형 맞춤형 인구정책

시는 인구 40만세 유지를 1차 목표로 사회중간(전출입) 인구 감소와 감소폭 완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실거주 미전입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대학생과 청년 근로자를 중심으로 구미사랑 주스갯기 운동을 확대하고, 전입 시책과 시민우대 혜택 추가 발굴 등 구미만의 특화된 시민 중심 인구시책을 확대해 나간다.

전입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인구시책이 담긴 전입 환영 문자를 발송하고, 소속 임직원 관내 전입률이 일정 비율 이상인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구미사랑 인증제도를 시행하는 등 혜택을 확대한다.

전입근로자 대상 근로자종합복지회관 1개월 무료 이용, 공공체육시설 이용요금 시민 우대, 구미에 주소를 둔 지역 학생 우대 장학제도 개편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장기간 공실 상태인 구미역을 활용해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청년활동지원센터와 청년 공유오피스 조성·생애주기별 원스톱 지원 인프라를 구축해 청년 활동 지원과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한다.

김장호 시장은 "모든 정책의 최종목표를 인구문제 해결에 두고 구미 재창조를 추진하고 있다"며,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추진한 인구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꼼꼼히 살피고 분석해, 올해는 미래세대를 위한 인구정책 수립으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은진 기자

문경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늘빛나리' 캠프 참가

챌린지 시설 체험 성취감 얻어

문경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40여명은 국립평창수련원에서 진행되는 2024년 청소년 지원사업에 선정돼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늘빛나리' 캠프에 참가했다.

늘빛나리 캠프는 수련원 실내 챌린지 시설을 이용한 로프코스, 터널메이즈 등을 통해 스스로 두려움을 극복하여 성취를 느낄 수 있는 활동을 비롯해 모듬북, 응원댄스, 장기자랑, 진로 고민 나누기 등 청소년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활동으로 구성돼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의 장이다.

참가 청소년과 지도사 간의 긍정적인 관계 형

성 및 동기 부여의 시간이 됐다.

캠프에 참가한 이모 학생은 "챌린지 시설을 이용한 체험을 할 때는 많이 무섭고 겁이 났지만, 친구들의 응원으로 한 번 해보고 나니 두려움이 많이 사라져서 다른 활동도 열심히 도전할 수 있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문경시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주출품터'는 여성가족부, 북권위원회, 문경시에서 지원을 받아 청소년들의 다양한 교육(교과학습보충, 체험활동 등), 생활(차량, 급식, 면담 등), 특별운영(가족 체험, 캠프, 발표회 등) 등을 연간 상시 지원하는 곳으로 40명을 정원으로 선착순 신청을 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초등 4, 5, 6학년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김동수 기자

김광용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장 상주시 방문

대설 대비 점검·현장 관계자 격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장은 지난 17일 상주시를 방문해 겨울철 대설 대비를 위한 시설 작업 준비사항 및 관련 시설을 점검하고 최일선에서 노력하는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방문에서는 내서면 북장리 소재 도로관리사무소에서 대설 대비를 위한 제설차량과 장비 등 상주시 제설대책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상주시는 적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군도 26호선 등 고갯길 4개소를 결빙 취약 구간으로 지정해관리하고, 봉천 및 읍면동 공무원, 공

무직, 임차 기사 등 총 3800명이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총 10회 제설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 또한 임차차량 5대를 포함한 39대의 제설차 및 염수탱크로리 3대 등을 신속 운영 중이다.

빙설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자동 염수 살포 장치 4개소 및 도로 열선 2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염화칼슘 344톤, 소금 86톤 등을 사전 확보하여 제설작업 시 사용하고 있다.

김광용 실장은 "대설 피해 관련 대응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동절기 기간 시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주요 지역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경호 기자



의성군, 동계청소년올림픽 출전 컬링팀 응원

혼성 4인조 믹스 메달 사냥 나서

의성군은 지난 12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출전을 앞둔 컬링 혼성 4인조 믹스팀(Mixed Team) 종목 출전선수를 초청해 올림픽 출전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15개 종목 80개국이 참가한다.

이번 대회 컬링종목 중 믹스팀에는 김대현·권준이(의성고 2년), 장유빈·이소원(의성여고 1년)이 대표팀으로 출전한다. 이들은 지난해 9월 대표 선발전에서 팀을 이휘 6전 전승을 거두고 태극마크를 따냈다.

믹스팀 대표팀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에서 은메달 신화를 세운 선배 팀처럼 다시 한번 의성컬링의 자력을 보여주겠다"라고 다짐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의성의 자랑스러운 아들·딸들이 국가대표의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의성컬링을 알리고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를 군민과 함께 응원하고 기원하겠다"라며 선수들을 격려했다.

한편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컬링 믹스팀 경기는 20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다.

대한민국 믹스팀 대표팀은 B그룹에서 브라질, 캐나다, 덴마크, 독일, 이탈리아, 영국, 스위스와 함께 열린 경정을 펼친다. 박재성 기자

안동 영주
봉화 예천

영주시, 지역경제 풀뿌리 소상공인 지원 강화



서구동 새마을부녀회, "사랑의 떡 나누기 행사"

안동시 서구동새마을부녀회는 지난 18일 서구동행정복지센터에서 사랑의 떡국 떡 나누기 행사를 열었다.

서구동 새마을부녀회는 홀몸 노인 등 관내 어려운 이웃 120 가구에 140만 원 상당의 떡국 떡 240kg과 계란 6판을 직접 전달, 이웃 간의 따뜻한 정을 나누었다.

평소 서구동 새마을부녀회에서 헌 옷 모으기 등을 통해 작지만 꾸준하게 기금을 마련, 어려운 시기에 관내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쌀나누기, 반찬나누기, 김장나누기 행사 등 봉사활동을 꾸준히 실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옥의 부녀회장은 "연일 이어지는 한파로 홀몸노인과 어려운 이웃들이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지만, 따뜻한 떡국을 드시면서 2024년에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SNS 구독 커피쿠폰 증정



봉화군이 22~2월 2일까지 전국민을 대상으로 봉화군 공식 SNS

구독 행사를 한다.

참여 방법은 봉화군 공식 SNS(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를 구독한 후 이벤트 게시물에 댓글을 남기면 된다.

참여 기간은 22-2월 2일까지다. 군은 20명을 추천, 투첨플레이스 커피 기프티콘을 증정한다.

당첨자는 2월 7일 SNS 채널을 통해 공지된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봉화군 공식 SNS가 활성화되고 많은 분들이 봉화군정에 대한 관심을 가지길 바란다"고 했다.



영주시는 올해 900억 규모의 영주사랑상품권을 발행, 10% 할인 판매를 지속한다.



전통시장 고유 매력 주변 관광지와 연계 지역 경제 견인효과 세마리 토끼 잡는다

영주시의 전통시장이 확보된다.

영주시가 올해 전통시장·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으로 지역 경제활성화 '박차'를 가한다는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았다.

시장 환경개선 등 경쟁력 확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배달료 지원 등 시책추진으로 경영안정피한다는 복안이다.

무엇보다 영주의 전통시장이 가진 고유의 매력과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성, 지역경제 견인효과 등 일석삼조 세마리 토끼를 잡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감소 등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상공인들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한해 적극적인 지원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추진

시는 지역경제의 최일선인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시장 환경개선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공모 선정으로 풍기토종인삼시장에 총사업비 17억 원(국비 10억, 시비 7억)을 투입, 74면 규모의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을 만든다.

전통시장 기능 회복과 매출액 증대 목표로 관내 전통시장 5개소에 '전통시장 시설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철저한 시장 방역과 주기적인 청소로 깨끗한 쇼핑환경을 조성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환경정비·위생 방역사업'을 추진, 전통시장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 상인과 상생 발전하는 공동체 육성을 위한 '전통시장 특관행사 및 홍보지원사업'과 전통시장 내 상인들 간 화합을 꾀하는 '영주시 상인연합회 교류 한마당' 행사 등을 추진한다. 시는 △전통시장 행복경영 매니저 사업 △시장경영패키지 사업 △전통시장 화재공제지원사업 등을 통해 자생력을

을 갖춘 전통시장의 성장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침체된 전통시장 내 빈 점포를 활용해 점포 임대료, 환경개선, 홍보 지원 등 장업을 지원하는 '전통시장 빈 점포 창업 지원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지역 경제 동력 추진

시는 3고 현상(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의 풀뿌리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도 강화한다.

지난해 매출액 4억 원 이하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수수료 일부를 지원해주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과 매출액 증대를 위한 경영컨설팅을 제공한다.

시설환경개선 및 안전설비·홍보 등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새비빔 체인지업 사업' 및 경영안정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비대면 플랫폼이 중요해진 만큼 소상공인들의 배달앱 가입비, 중개수수료 등의 부담을 덜고자 추진되는 경북 공공배달앱 '막개비'의 할인쿠폰

발행과 가맹점 홍보를 지원한다.

'경북 공공배달앱 운영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도내 최초로 공공배달앱 가맹점 대상으로 배달료를 지원하는 '영주시 공공배달앱 가맹점 배달료 지원사업'도 시행 중이다.

장기적인 불황으로 담보 능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차액 보전·특례보증 출연금 및 이차차액 보전 사업'도 추진한다.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900억 규모의 영주사랑 상품권 발행해 10% 할인 판매를 지속한다.

시는 풍기인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지난해 도내 최초로 건립된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는 인삼 관련 시제품 개발 및 시험분석 등을 지원해 풍기인삼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전통시장·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시책추진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상, 경상북도 지역경제 활성화 평가에서 최우수상 등을 수상했다. 전성기 기자

김학동 예천군수, 명품교육도시 만든다

예천군, 안동-예천 상생형 교육발전특구 지정 추진

예천군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에 행정력을 총동원한다.

지난 19일 예천축산농협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 예천교육 설명회'에 참석, 이같이 밝혔다.

예천교육지원청이 주관한 '2024 예천교육 설명회'는 예천 관내 유·초·중·고(교원)장 및 학교 운영위원장, 학부모 회장단을 대상으로 2024년 전반적인 예천 교육과정을 설명하는 자리다.

예천군은 교육 관계자가 참석하여 자리에서 안동시와 공동으로 안동-예천 지역 상생형 교육발전 특구 지정에 도전한다고 설명했다.

명품 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예천

군 교육지원사업 현황을 안내하고 교육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도 함께 가졌다.

예천군과 안동시는 최근 경북도립대와 안동대의 글로벌 대학 30선정과 경북도청 신도시 개발이라는 이점을 살려 지역 여건을 반영한 상생형 교육발전 전략 및 지역연계 양성 체계를 구축하여 교육발전 특구 지정을 추진한다.

교육발전특구 추진 방향은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돌봄 시스템 강화 △초·중·고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학력신장 △디지털 기반 수업 혁신 △지역산업 연계 우수 인재 양성 등이다.

군은 22일 '안동-예천 교육발전특구 협약식'을 가지고 지자체, 교육청, 지역 대학, 지역 기업 등 20여 곳과 교육발전특구 지역협력체를 구축한다.

내달 초 교육부 최종 공모에 신청한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예천군은 현재 학령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예천군을 명품교육도시로 만들기 위해 안동시와 지역 교육 관계자들과 함께 교육발전특구 지정에 도전하니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지역 기업,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 발전으로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이다. 최준길 기자

봉화군, 아프리카돼지열병 원천 차단

봉화군은 지난 16일 영덕군에 있는 양돈농장에서 도내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긴급 방역조치를 하고 있다.

군은 도축장 역학관련 농장 8곳도 별도 해제 시까지 이동제한 명령을 발령, 주 1회 임상검사를 한다.

축산시설과 양돈농장은 매일 자체 소독도록 안내하고 축협공방단 및 군 방역차량을 동원해 취약농장 및 인접도로에 집중소독을 하고 있다.

군에서는 전화예찰과 함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정보, 방역수칙을 문자(SMS) 등을 활용해 농장과 실시간 공유하며 보유 중인 야생동물기피제 500kg, 생석회 10톤, 소독약품 500리터, 휴대용 살균소독제 200통을 긴급배부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양돈농장에서 모두 39건이 확인, 경기 17건, 인천 5건, 강원 16건이 발생했고 그 외 지역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성기 기자

힐링이 필요한 순간 스마트하게 즐기는
영주여행

지금 바로 스마트폰 마켓 or 앱스토어에서 **영주여행** 을 검색해보세요!

※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여행 중에도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 수칙을 잊지 마세요!

Opinion

신문 및 이 달 라 지 면 신 문 내 용 도 달 라 지 야 합 니 다 대 구 광 역 일 보 는 독 자 가 숨 까 지 다 생 각 합 니 다



대구광역시일보 www.dgy.co.kr

대표 (053) 253-0000 FAX (053) 253-0041 대구시 중구 태평로286(2층)

발행인 김영숙 편집인 김성웅 부사장 조여은 편집국장 김현석

지역번호 053 대표 257-0000 부사장 254-0400 편집국장 257-0200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외부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칼럼

4·10 총선에 거는 기대와 우려

류동길

송실대 명예교수



4·10 총선이 다가온다.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라고들 하지만 실제로 주인 행세를 할 기회는 선거 때뿐이다. 선거가 끝나면 주인 행세는 끝난다. 그래서 국민의 후회는 거듭된다. 후회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국민 눈높이에 어긋나는 각종 특권과 특혜를 포기하겠다는 다짐을 받아 놓아야 한다. 약속을 모두 지킨다는 보장은 없지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해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의원총회에서 '검찰의 정당한 영장 청구에 한해'란 조건을 달아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했다. 정당한 영장 청구인가는 법원이 판단하는 것인데도 겉으로는 특권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려는 꼼수를 썼고, 실제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불체포특권 포기를 서약한 분들만 공천하겠다"고 밝힌 것은 분명히 한발 앞서가는 행보다. 그러나 불체포특권은 비리 국회의원 보호용이다. 비리와 범죄에 연루되지 않은 국회의원에겐 아무런 의미도 없다.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보다 중요한 것은 좋은 사람 뽑는 것이다. 그러나 후보자 모두 그렇고 그런 사람이라면 어찌는가? 좋은 사람 같아 보여도 국회에 들어간 뒤에 사람이 달라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미리 각종 특혜와 특권 포기 약속부터 받아 두자는 것이다. '특권포기국민운동본부(대표 장기표)'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특권은 불체포특권을 비롯해 200여 개에 달한다. 이번 총선으로 출범하는 제22대 국회는 국회의원 특권 포기과 폐지를 통해 정치 개혁을 이루는 민의의 전당이 되어야 한다. 특권의 갑옷을 겹겹이 두른 국회의원들이 경제와 민생 법안 처리는 뒷전인 채 저질 정쟁만 거듭한다면 정치 개혁은 물 건너간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주태법·중대재해처벌법·의료법 개정안을 비롯해 중요한 민생 법안들이 처리되지 않았다. 국회의 고비용과 저효율이 한계를 넘어섰다는 걸 다시금 확인시켜 준 사례다. 그런 국회의원 1명에게 4년간 지원하는 국민의 혈세가 대략 35억 원으로 전체 국회의원 300명에게 나가는 돈은 무려 1조 원을 웃돈다. 국회의원의 특권들에 대해 여기에 일일이 거론하긴 어렵지만, 우선 국회의원에게 보좌진이 왜 9명씩이나 필요한가부터 따져 보자. 보좌진 9명의 연간 급여는 4억 원이 넘는다. 선거철이 임박하자 이들 보좌진이 업무를 핑계치고 지역구에서 선거운동에 전념한다고 한다. 말하자면 국민 세금으로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하는 셈이다. 이번 총선에서 불체포특권 포기에 이어 보좌진을 서너 명으로 줄이겠다고 공약하는 후보와 정당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외국의 예를 굳이 인용할 필요도 없지만 국회의원 2명이 비서 1명을 공유하는 나라 도 있다. 한국 경제가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로 들어서는 것을 의미하는 '피크 코리아(Peak Korea)'란 단어가 외신을 타고 전해졌다. '한국의 성장은 끝났다'는 뜻으로 경제성장률 저하와 인구 감소, 정부-기업-가계 부채 증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제시됐다. 우리의 문제는 단순히 낮은 성장률에 있지 않다. 성장할 체력, 다시 말해 성장잠재력이 추세적으로 떨어지는데도 대비를 안 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인적 자본 축적과 각종 규제 혁파, 기술 개발 등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한두 가지 정책으로 안 되고 단기간에 이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경제를 정치적 잣대로 다루는 정치야말로 사태를 악화시키는 주범이다. 걸핏하면 성장잠재력을 제고시키려는 커녕 오히려 갹어먹는 정책을 펴다. 예컨대 원전을 폐기하고, 기업을 옥죄면서 세금으로 알바 일자리 늘리고, 적자 예산을 편성해 현금 뿌리고, 심지어 정책 실패를 감추려고 국가 통계까지 왜곡·조작하니 경제가 수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번 총선에서 허접한 싸움꾼이 아닌 참신한 인물, 경제 발목 잡지 않는 인물들을 뽑아 살맛나는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아니면 지금의 국회 모습을 재현하는 인물들이 또 등장할까? 기대와 우려가 혼재한다. 국민의 머슴들이 국가의 주인을 감박하고 불안하게 하는 정치는 끝내야 한다. 그러려면 국민이 총선에서 나라의 주인 행세를 제대로 해서 본패를 보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오늘의 핫 뉴스 황주호 한수원 사장, 체코 신규원전 세일즈



황주호 한수원 사장이 16,17일 이틀간 체코 현지에서 두코바니 신규원전 사업 수주 활동을 펼쳤다. 황 사장은 17일 체코전력공사(CEZ) 및 체코 산업부를 찾아 한국 원전의 기술력과 사업관리 역량 등을 설명했고, 소형모듈원자로(SMR) 및 수소에너지 등 차세대 기술 개발현황도 함께 소개했다.

이어, 밀로쉬 비스트르칠(Miloš Vystrčil) 체코 상원의장과 의면담에서 신규원전 사업의 임차에 공평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16일(현지시간)에는 체코의 대표 원전 기지제 제작업체 중 한 곳인 두산스코다파워를 방문해 지난 2018년 맺은 협력 MOU를 갱신했다. 같은 날 황 사장은 체코 플젠에 위치한 서보헤미아 대학교를 방문, 인력양성 및 R&D 공동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우리나라는 2019년부터 체코와 학계 협력을 긴밀히 하고 있다. 한 국전력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KINGS) 또한 프라하체코기술대학교(CTU), 브르노공과대학교(BTU), 그리고 서보헤미아 대학교와 교환학생, 공동연구 및 원자력 에너지 교육 분야 상호 교류 등에서 협력하고 있다. 황주호 사장은 18일부터는 폴란드에서 한수원 바르샤바 사무소 개소 및 현지 주요인사들과의 면담 등 폴란드 코닌 신규원전 사업 수주 활동을 이어간다. 체코 신규원전 사업은 2022년 3월 임차에 시작됐으며, 한수원은 같은 해 11월 최초 임찰서를 제출하고 2023년 10월 최종 임찰서를 제출했다. 체코 신규원전 사업의 발주사는 현재 임찰평가를 진행중이며 올해 상반기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오늘의 정치 논평

비난에 눈멀어 오보를 기반으로 증오와 혐오를 배설하는 것은 민주당입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민주당 수석대변인의 말의 무게가 어찌 이리 가벼운 것입니까. '민주주의에 대한 증오와 혐오의 배설'은 민주당 대변인단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음모론 설파론자 정청래 최고위원까지 거들고 나섰습니다. 평생 운동권 완장을 차고 특권을 누려온 집단이 아직까지 이를 우려먹으며 상대 당을 향해 악담을 퍼붓고 있습니다. 심지어 무늬만 운동권인 인사들이 허다한데도 마치 자신들이 민주화의 주역인 양 그렇게 끝까지 광주와 민주주의를 팔아먹어야겠습니까.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확인치 않고 명백한 오보를 기반으로 허겁지겁 비난을 쏟아내고 나니 속이 시원하십니까. 한 언론사가 과거 박은식 비상대책위원회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혐오 발언을 했다는 보도는 명백한 오보로 밝혀졌고 현재는 기사가 철회된 상태입니다. 박 위원은 되레 "광주 폭동이러니요", "당장 지우세요"라고 즉각 반박했으며 해당 메시지 기록을 모두 확보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야말로 혐오 정치의 동조자이며 음모론의 발원지입니다. 이런 근거 없는 악의적 비방마저도 '이쪽 업계에서 통용되는 잔기술'입니까. 민주당 차원의 사과와 엄정한 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윤석열 독재정권의 공포정치가 민주주의를 끌어냈습니다.

'국정기조를 바꿔야 합니다'는 말을 윤석열 대통령에 전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입이 틀어막히며 행사장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윤석열 독재정권의 공포정치가 민주주의를 끌어낸 것입니다. 국민의 민심을 틀어막으며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공포정치를 폭력으로 실행한 경호실의 난동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사과하고 경호처장 파면하십시오. 진보당은 공포정치를 민주주의를 압살하려는 윤석열 정부에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대통령실의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입니다. 대통령실은 강성희 의원이 손을 놓지 않고 소동을 일으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팩트는 강성희 의원은 악수를 가볍게 나누고 손을 놓은 것입니다. 오히려 강성희 의원이 말을 시작하자마자 경호원들이 앞뒤로 에워싸 협박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강성희 의원 탓으로 몰아가기 위해 대통령실이 지속적으로 거짓변명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면 법적 대응하겠습니다. 진보당은 어제의 사태에 대해 국민과 언론인들의 제보를 받겠습니다. 강성희 의원이 끌려나가는 현장 영상이 보도되자 진보당에는 분노한 국민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강성희 의원을 대통령 경호원이 가려하는 듯하다는 우려적인 제보도 다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모든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공식제보를 받고자 합니다.

행복한 시민 자랑스러운 대구. 도전하는 청년, 활기찬 노후, 꿈을 키우는 아이, 행복한 가정. 쾌적하고 행복한 도시 살고 싶은 대구. 내게 딱 맞는 인구정책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대구광역시

2025 APEC 정상회의의 경주

2025

A P

가장 한국적인
도시 경주에서

과거의 역사를
아우르고



현재의
경험을 나누고

미래의 꿈을
실현합니다

